휘발윳값 9주 연속 하락… 1500원대 속속 등장

美 상호관세 영향 국제유가 약세 지속
ℓ당 평균 광주 1643원·전남 1676원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1500원대인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휘발유는 9주, 경유는 8주 연속 하락세인데,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당분간 국내 기름값 내림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 이달 둘째 주 광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3원이다.

지난 2월 첫째 주 1718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광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후 9주 연속(1716→1712→1707→1700→1685→1669→1660→1655원) 하락세다.

1500원대 휘발유 판매 주유소도 수두룩 하다.

광주에서 휘발유 판매가가 가장 싼 곳은 광주 북구 장등동에 위치한 (유)착한주유소와 서구 치평동 ㈜대원 강변주유소로 각 1559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남 휘발유 가격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 2월 둘째 주 1730원을 기록한 이후 8주 연속(1729→1727→1724→1713→1701→1689→1683) 하락, 이달 둘째 주는 1676원까지 떨어졌다.

전남에서 휘발유 판매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나주 대호동의 ㈜대원 동신주유소로 1588원이다.

경유 역시 광주는 9주, 전남은 8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월 첫째 주 1586원을 기점으로 1585→1582→1579→1572→1558→1541→1532→1527→1514원으로 계속해 하락세다.

전남은 2월 둘째 주(1594원) 이후부터 하락이 시작, 1593→1592→1588→1577→1566→1555→1549→1542원을 보이고 있다.

광주에서 경유 판매가가 가장 싼 곳은 ㈜대원 강변주유소로 1426원이며, 전남은 1415원으로 확인된 ㈜대원 동신주유소다.

국제유가는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가속,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석유 수요 둔화 전망 등으로 인해 대폭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0.2달러 내린 64.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4달러 하락한 7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8.8달러 내린 7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유가 급락이 국내 기름값 하락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당초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나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ESG 대응 젊은세대 주축 '혁신리더' 출범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ESG 혁신 리더(주니어보드)'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ESG 경영의 실천을 강화하고, 조직 내·외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ESG 혁신 리더는 다양한 부서의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주니어보드 형태로 구성, 청년 인재들이 ESG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SG 혁신리더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 비전을 공유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부서별 ESG 경영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ESG 혁신 리더 출범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며 "ESG 경영은 단순히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다"고 말했다.

이어 "ESG 혁신 리더의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고, 청년들이 ESG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알루미늄 캔 밟아서 분리배출하세요"
오비맥주, '캔크러시 챌린지'…28일까지 숏폼 공모

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알루미늄 캔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캔크러시(Can Crush) 챌린지'를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알루미늄 압연·재활용 기업 노벨리스에 따르면 한국의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률은 80%에 이르지만,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오비맥주는 캔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벨리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와 함께 캔크러시 챌린지를 마련했다.

캔크러시 챌린지는 다 마신 알루미늄 캔을 밟거나 찌그러뜨린 뒤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과정을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인증하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챌린지는 28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알루미늄 캔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린 후 분리배출하는 모습을 10초 이내 영상으로 촬영한 뒤, 오비맥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고, 필수 해시태그인 #캔크러시챌린지 #지구의날을 포함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업로드해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된다.

응모 영상들은 내부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해 배달의민족 10만원 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오비맥주는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저감에 참여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 댓글 이벤트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영한다.

캔크러시 챌린지와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면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참여 개수당 1000원의 기부금을 후원해 기부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주차장에서 광주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광주시민들의 경제적 소비를 위한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식을 가졌다.

농협 광주본부,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 개장

답례품 홍보관 운영·인절미 나눔 행사 등 호응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주차장에서 광주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광주시민들의 경제적 소비를 위한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을 비롯해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광주지역 14개 지역농협 조합장, 오미록 광주소비자연맹 회장, 황금숙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답례품 홍보관 운영, 인절미 나눔 행사,

이번 금요직거래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100여종의 농축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관 운영, 인절미 나눔 행사, '행운의 농산물 룰렛판' 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 행사와 사은 행사가 함께 진행돼 장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며 광주시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금요직거래장터를 통해 출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장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중장년내일센터-신용회복위, 업무협약 체결
고용불안정 해소 협력…실업·채무문제 원스톱 상담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는 최근 신용회원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장년을 위한 신용회복 및 고용지원제도 상담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 해소를 위한 취업 알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은 광주경총 중장년 내일센터가 전담한다.

신용상담, 채무조정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본부가 맡아 채무 문제와 실업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돕는데 힘쓴다.

광주경총 중장년내일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본부는 금남로에 위치한 광주고용복지+센터에 함께 입주해 있어 한 번의 방문으로 실업문제와 채무문제에 대한 복합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장년내일센터는 오는 29일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서비스를 특강으로 구성, 참여자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 신복위와 협약을 통해 채무, 실업문제 등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소상공인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광주전남 농·소형조합 방문

5개 신협서 현안 공유·경영 애로사항 청취

신협중앙회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5개 신협(계림·광주용산·광주교회·광주충장·완도 신협)을 순회 방문해 농·소형 조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윤식 회장은 경기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영 피로도가 누적된 광주·전남지역 농·소형 조합을 격려하고 신협 현안과 대응 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회장은 농·소형조합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전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김윤식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농·소형 조합의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2025년에도 홍보물품 지원, 사무환경 개선 등 농·소형조합을 적극 지원하고, 동반 성장제도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인구 고령화, 농촌 인구 소멸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 조합과 자산규모가 작아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형 조합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관내 농·소형 조합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켄텍 창업기업 '노원비하인드' 국제적 권위 교육기술상 선정

한국에너지공대(켄텍) 교원창업기업인 노원비하인드가 글로벌 최고 권위의 교육기술 시상식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켄텍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경쟁이 치열한 교육기술 시상식으로 알려진 EDTECH DIGEST 주관 'The Edtech Awards 2025(글로벌 어워즈 2025)'에서 기술부문과 기업부문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EDTECH DIGEST의 'The Edtech Awards'는 전 세계 교육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행사로, 글로벌 교육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과 기술을 선정한다.

이번 기술부문에 최종 후보로 오른 노원비하인드의 'ALC 다중학습분석 솔루션'은 교실 내 개별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분석 플랫폼이다.

노원비하인드의 학습분석 솔루션은 학습 효과의 극대화와 교육 질 향상을 실현하는 혁신 제품으로 평가받아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기업부문에도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노원비하인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로벌 교육기술 시장에서의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국제적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Lotto 6/45
로또 8 23 31 35 39 40

로또 1등 10명…당첨금 각 28억8000만원

제116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23, 31, 35,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8억840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9명으로 각 696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42명으로 16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09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1만4372명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독일 레드닷 어워드 본상 2개 수상

전기차 타이어 '이노뷔 프리미엄'·'이노뷔 윈터' 호평

금호타이어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 2개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최대 디자인 경연 대회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힌다.

금호타이어는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전기차 타이어 '이노뷔 프리미엄'과 '이노뷔 윈터' 두 제품이 상을 받았다.

이노뷔 프리미엄에는 전기차 전용 아이콘 심볼을, 이노뷔 윈터에는 겨울을 상징하는 눈꽃과 크리스털에서 모티브를 얻은 디자인을 적용했다.

김영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전무)는 "타이어 디자인은 심미적 영역을 넘어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요소이다. 금호타이어는 디자인이 곧 기능인 타이어에 구현한 혁신적인 기술을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며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고객 만족을 충족시키며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도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